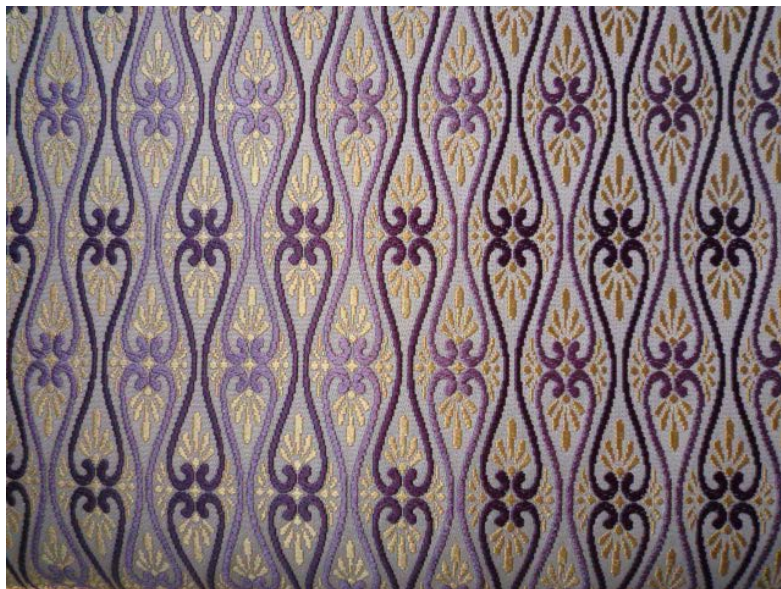


광원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‘가사네 염색’ 개발

다이쇼보세키주(Daishoboseki Industries, Ltd.)는 최근 무라타센코주(Murata dyeing co., Ltd.)와 제휴하여 빛의 종류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원모염색사 ‘가사네 염색(襲染め)¹⁾’을 개발하였다.

이것은 무라다센코주가 개발한 고대의 색을 현재의 공업염색으로 재현한 ‘킨조쿠(麴塵)²⁾’ 염색을 응용한 것으로, 외의류용 직·편성물로 전개를 고려하고 있다.

‘가사네 염색’은 광원의 종류(태양광, 형광등, 백열전구)에 따라 실·원단의 색상이 크게 변화하는 특수염색사이다. 무라타센코주가 천황만이 착용할 수 있는 고대색 ‘킨조쿠’를 공업염색으로 재현한 ‘킨조쿠 염색법’을 양모섬유 염색에 응용한 것으로 이를 다이쇼보세키주가 방적하였다. 추후, 원모염색사는 다이쇼보세키주가 판매하고 염색가공은 무라타센코주가 진행할 예정이다.



<사진 1> 킨조쿠 염색 사례

(우측에서 빛을 받을 경우,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색상이 그라데이션처럼 변함.)

현재, ‘히와다색(농암적색)’, ‘킨조쿠색’(청백상), ‘데오무라사키색(보라색)’의 3가지 색상이 출시되었다. 다이쇼보세키(주)의 한 관계자는 ‘외의류 생지로서 적용한다면 ‘비단벌레’와 같이 색이 변화하는 재미있는 상품으로 전개가 가능하며 주로 여성용 외의류의 직·편성물로 전개할 예정이다’고 하였다. 또한, 양모섬유에 구라보의 환경배려형 특수방축가공 ‘EcoWash’³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. ‘EcoWash’³ 가공 양모섬유는 양모 본래의 태 및 흡방습성이 손상되지 않는다. ‘가사네 염색’은 독특한 색사로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.

¹ : 쪽과 감물을 겹침염색한 새로운 천연염색

² : 일본의 천황만이 착용할 수 있던 차분한 녹색, 청백상, 푸르스름한 누른 색이라고도 말한다. 황색과 적색을 겹쳐 염색한 것

³ : EcoWash : 염소 및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오존을 이용한 양모 방축가공